불교 모르면 한국종교사 서술 한계

종교학회 학술발표회 편년체 나열 탈피, 인력·연구영역 확대 '한 목소리'

한국사학자들은 불교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한국사, 특히 한국 고대·중세사를 서술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 결과 역사학적 측면에서의 불고사 관련 연구는 상당 부분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며, 불교사학자들의 전문적인 연구활동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한국불교사를 비롯한 종교사의 연구수준이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종교사 관련 1차자료의 미비와 연구방법론의 부재가 종교사학계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와관련 지난 4일 이화여대서 열린 한국종교학회(회장 길희성)의 '한국종교사 어떻게 쓸 것인가' 주제의 학술발표회는 한국불교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방법론적 체계를 가지고 쓰여져야 할 지에 대한 적절한 토론의 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이흠교수

◇이은봉교수

◇윤원철교수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대 윤이흠교수는 "종교사학계는 지금까지 정치사연구의 부산물로 취급돼 온 종교·문화자료들을 편년체(編年體)로 나열하는 작업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한국종교사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연구를 위해 방법론의 재정비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그는 "믿음이라는 심리상태와 역사적 요인(교리)이 합해진 종교현상의 역동적인 전개과정을 설명하는 작업이 종교통사(通史)"라고 주장했다.

윤교수는 한국종교사 분야의 통사가 활발하게 연구되지 못한 원인으로 △국사학이 정치사에 비중을 둠으로서 한국종교·문화사 분야가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점과 △종교사분야의 전문연구인력의 부족 등을 들었다.

이어 '한국 禪학에 있어서 방법론적 성찰의 부재에 대한 단상(斷想)'을 발표한 서울대 윤원철교수는 종교사를 포함한 종교연구의 방법론적 성찰과 관련, "제도화된 학문분야라면 공유된 방법론적 성찰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불교학계의 방법론적 논의의 부재를 꼬집었다.

윤교수는 또 지난 90년 보조사상연구원 학술회의에서 촉발된 '돈점(頓漸)논쟁'과 관련, "종교적 신념에 입각한 종교인의 자기 종교 이해와 세속 학문적 시각에서의 이해가 충돌하는 문제는 종교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론적 주제의 하나로 논의돼 왔다"며 "종교적 권위와 학술적 권위가 근본적으로 별개라는 원칙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덕성여대 이은봉교수는 '해방후 한국종교 연구의 흐름과 관심'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각 종교전통별 연구사와 연구방향을 비교하면서 개선점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까지 축적된 연구인력을 활용, 종교연구사의 흐름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논의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영역을 확대하면 한국종교의 본질에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주인공 믿는법을 구체적으로…

문 본란을 통해서 스님의 '주인공 법문'을 늘 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스님 말씀처럼 "주인공을 믿으면 된다"는 것이 잘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안예문·전북 군산시 소룡동〉

답 주인공이란 생명의 근본, 마음 내는 것, 이 육신 움직이는 도리를 통칭한 것입니다. 학생이 나름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고정된 그 무엇, 내놓을 수 있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주인공을 믿어라 하니까 어떤 분들은 무턱대고 '주인공이 알아서 하라'거나 '주인공 해주시오'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건 맹목적인 것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지혜롭지도 못하지요.

'놓으라' 하니까 '그래 놓았다' 하든가 '끊으라' 하니까 '끊어야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체만물은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고 용도에 따라 찰나찰나 나투는데 무엇보다 그 해서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고(苦)로부터 해탈하는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독화살을 맞은 사람에겐 빨리 그 화살을 뽑는게 중요하지 그 화살은 누가 만들었고 누가 쏘았는지 먼저 알고자 하는 것은 쓸데 없는 짓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영혼도 이름이고 마음도 이름입니다.

또 영혼이다 마음이다 둘로 볼게 아닙니다. 동시에 작용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근본에 대해 말할 때는 몰라도 그 밖에는 영혼이라고 해도 좋고 마음이라고 해도 좋고 업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윤회다 업보다 하는게 다 그런 작용이지요.

영혼을 실재로 알아서는 안됩니다.

꿈이란 번뇌망상의 현상인지요

문 꿈을 자주 꾼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꾸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꿈을 안 꾼다는 사람은 잠자는 동안 번뇌망상을 쉬고 순수한 마음 경지에 드는 것입니까?

〈이종윤·경기 부천시 원미구〉

답 우화를 하나 말해 드리지요.

어떤 사람이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간밤에 소쿠리 하나를 줍는 꿈을 꾸었습니다. 해몽해 주시지요.' 그러자 노승왈, '너, 오늘 잔치에 초대받아서 배불리 대접 받겠구나' 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은 뜻밖에도 초대를 받아 진수성찬을 즐기게 되었더랍니다.

그러자 한 젊은이가 이 일을 기억했다가 어느날 노승에게 꾸지도 않은 소쿠리 꿈을 꾸었노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승의 해몽인즉, '너는 오늘 중에 뭇매를 맞게되니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꾸지도 않은 꿈이라 속으로 비웃고 말았는데 정말 그날 저녁 나절에 동네청년들로부터 뭇매를 맞게 되었더랍니다.

그 젊은이는 너무 억울해서 노승에게 꾸지도 않은 꿈얘기인데 어째서 맞아 떨어지느냐고 푸념을 해댔습니다. 노승왈, "얘야, 네가 꾸지도 않은 꿈을 꾸었노라고 말하리라 생각한게 바로 꿈이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시에 이런저런 생각하는 것도 다 꿈이니 꿈을 잘 꾸어야 하겠지요.

잠자는 동안에 꾼 꿈도 해몽을 잘 해서 돌려 놓으면 먼저 입력된 것을 지우는 것이 됩니다.

아무튼 자면서 꾸는 꿈도 꿈이요 눈 뜨고 생각 짓는 것도 꿈이니 구별할 것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다 꿈인줄을 아는 것이지요.

잠잘 때 꿈 안꾸고 잤으니 번뇌망상이 쉬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럼 눈 뜨고 꾼 꿈은 어쩌시렵니까? 눈 뜨고도 꿈 안꾸자고, 꿈인줄 알자고 마음공부 하는 것입니다.

지 상 상 담 —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점을 알기에 어느 때를 나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찰나로 도는 근본 이치에 일임하라는 것이지요.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나 자기 살림살이 돌아가는 모습이나 다같이 업보성·유전성·영계성… 등이 뒤얽혀 있질 않습니까? 그것을 '나'라고 고집하는 그 존재가 가늠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아버지 노릇 할 때는 아버지로서, 남편 노릇 할 때는 남편으로서 주인공에 일임하라는 것이지요. 하인이 주인에게 맡기면 주인이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그런데 하인이 주인에게 무조건 알아서 하라고 팔짱끼고 있는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 하고 용도에 따라 묻는단 말씀입니다. 관청에 빈 서류 디밀어 놓고 허가해 주시오 하질 않고 이런저런 조건에 이런 저런 일 하고자 하니 허가해 주시오 하지요. 비유하자면 그와 같습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영혼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까

문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영혼의 존재에 대해 여쭈었더니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고 오직 마음만을 강조하신줄 압니다만 평소에 윤회니 업보니 하는 말을 듣다보면 은연중에 영혼의 존재를 믿고 말하는 셈이 됩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장동윤·서울 은평구 대조동〉

답 대답하지 않으신 것과 부정과는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독화살의 비유를 통

"조선초기 불교 조정비호 받았다"

억불숭유정책에도 '외억내호'…이종찬교수 밝혀

조선초기의 억불정책에도 불구, 불교문화는 조정의 외억내호(外抑內護)적 비호로 나름의 위상을 유지했다.

한국불교문학사연구회 회장인 이종찬교수(동국대)는 지난 10일 동국대서 열린 '조선초 불가문학의 동향과 의미'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이같은 주장을 폈다.

이교수는 '조선초 억불숭유론과 불가문학: 효친순사(孝親順師)의 미래제시'란 논문을 통해 "조선초기의 숭유억불정책은 배불이나 훼불로까지 치닫는 극한적인 대립을 초래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태조는 즉위 4년에 고려 왕씨를 위한 전답 1백50결을 남해의 견암사에 내려주고 매년 2월 10일에 수륙재를 시행토록 하는등 덕치의 밑뿌리에 불교적 자비를 은연중에 담고있었다"고 밝혔다.

이교수는 '고려와 조선에서 충신·효자(麗忠鮮孝)'로 추앙 받았던 원진(元縝)국사의 행적기 〈호불사 창건주 원진국사 전말사적〉을 중심으로 조선초 통치자들의 외억내호적 불교비호를 조명했다.

원진스님은 고려~조선의 왕조변혁기에 탈속-환속-탈속의 수도 정진을 통해 조선조 스님의 고뇌를 전형적으로 보여준 인물.

또 스님의 사적기가 갖는 문학사적 위치는 조선조 불교설화 내지 소설적 모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이교수는 덧붙였다.

"불교경제 생산보다 분배 중시"

김안호교수 주장

부처님 당시 불교경제관의 기본정신은 어떠했으며, 그것의 현대적 의의는 무엇인가. 이런 의문에서 불교와 경제와의 관계를 고찰한 논문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조선대 김안호교수는 최근 조선대 〈학생생활연구소 연구지〉에 발표한 '불교와 경제에 관한 고찰'이란 논문을 통해 "불교의 경제윤리는 분배와 보시를 강조한다"면서 "부처님은 '만드는' 도덕보다는 '나누는' 도덕을 중요시 했고, 부의 재분배원칙으로 4분법을 가르쳤다"고 강조했다.

또 이같은 '나누는' 경제윤리는 오늘날 노사관계나 임금문제 등의 현대 경제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부처님은 정당한 경제활동으로 획득한 이익은 4분해서 △의식주등의 생활비와 △다음의 경제활동을 위한 회전자금 △저축과 고용인을 위한 급여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베풀어 주라고 가르쳤다는 설명이다.

한국고고학 반세기 조명

한국고고학회(회장 김병모)는 지난 3,4일 서울대에서 '한국고고학의 반세기'를 주제로 제19회 고고학전국대회를 열었다. 경성대 신경철교수의 '와질토기 문화론' 등 8편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싱가포르 종교상황 수록 '종교연구 11집' 발간

한국종교학회(회장 길희성)는 최근 김용표씨(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상임연구원)의 '선불교와 하시딕(Hasidic) 신비주의에 있어서 궁극적 만남의 의미', 김성건교수(서원대)의 '싱가폴의 종교상황' 등 16편의 논문을 수록한 〈종교연구〉 제11집을 발간했다.

◇기사넘쳐 '한국 사찰의 주련' 쉽니다.

◇미얀마 페근市의 '짜익푼 파고다(탑)'. 높이 20m의 사방불이 자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얀마, 남방불교 원형 잘 보존"

윤열수씨 불상등 현지사진 4천5백장 공개

동남아 불교미술을 조명한 학술발표회가 열렸다. 민학회(회장 심우성)는 지난 4일 문화재관리국대강당에서 '남방불교미술의 현황-미얀마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난 3월부터 6개월동안 미얀마를 현지답사 했던 윤열수 가천박물관 학예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인도에서 들어온 남방불교가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현장에서 촬영한 슬라이드 사진 4천5백여컷을 공개했다.

윤실장은 "미얀마의 석탑 불상 사원등은 남방불교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한국이 석탑, 일본이 목탑, 중국이 전탑(塼塔)이 많은데 비해 석재와 塼을 혼용한 탑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 북쪽 친드린강 부근 포원이라는 산에 있는 3만3천3백여개의 석굴로 이뤄진 11세기의 대사원을 조사, 불상 3천9백80여기와 석굴 9백48개에 대한 실측조사와 촬영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96학년도 (전기)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불교대학원 (야간) ☎260-3097~8
1. 모집과정 및 전공 : 석사학위·연구과정
가. 불교학과 : 불교·선학 나. 불교사학과 : 불교사·예술사 다. 불교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포교학
2. 원서교부 및 접수 : 1995년 11월1일(수)~11월13일(월)
3. 전형일시 및 방법 : 1995년 11월16일(목)14:00
가. 석사과정 : 영어, 전공, 면접 나. 연구과정 : 서류전형, 면접

■ 관리자과정(야간) ■
1. 지원자격 : 조계종의 대덕법계 품수 승려, 각 종단의 간부, 각 신행단체의 간부 및 대표, 포교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
2. 원서교부 및 접수 : 석사과정과 동일
3. 전형일시 및 방법 : 1995년 11월17일(금)13:00 서류전형, 면접

교육대학원 (야간) ☎260-3109~10
1. 모집과정 : 석사학위 및 연구과정
가. 교육학과 : 교육행정·교육경영·상담교육·유아교육 전공
나. 교과교육학과 : 국어·지리·역사·수학·윤리·철학·미술·한문·체육·영어·물리·화학·생물·가정·전자계산·종교·중국어 교육 전공
2. 원서교부 및 접수 : 1995년 11월13일(월)~11월24일(금)
3. 전형일시 : 1995년 12월2(토) 14:00
4.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 및 전공구술 시험
5. 특전
가. 교육기관의 교사, 정부행정기관 재직자는 경력을 감안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평점시 가산점 부여
나. 장학금 지급내규에 의하여 공사립 교육기관의 교사, 또는 공무원으로 재직중인자, 조계종 재직승려등은 수업료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함.

문화예술대학원 (야간) ☎260-3606~7
1. 모집과정및 전공 : 석사학위 과정 및 연구과정
가. 문예창작학과 : 문예창작 나. 연극영화학과 : 공연예술, 영상예술
다. 불교예술문화학과 : 불교미술, 불교음악, 문화재
라. 환경예술학과 : 환경예술 마. 건축문화학과 : 건축디자인
2. 원서교부 및 접수 : 1995년 11월6일(월)~11월17일(금)
3. 전형일시 및 장소 : 1995년 11월25일(토)10:00 동국관 본 대학원
4. 전형방법
가. 석사과정 : 필기시험(논술)및 면접 나. 연구과정 : 서류전형 및 면접
5. 특전 : 해외자매대학등의 연수에 참가할 기회있으며 각종 장학금 제도있음

■ 문화예술인과정 ■
1. 지원자격 : 정부 각 기관의 과장급이상 공무원, 본사 주지급인사, 언론·문화·예술 및 유관기관의 임원, 기업체임원,사회지도급 인사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2. 원서교부및 접수·전형일시및 방법 : 연구과정과 동일

본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한다.

동국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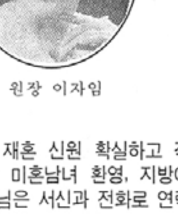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그리움

무덥던 그 여름도 가고
가을 들녘
바람결에 흔들리는
코스모스의 청초한 멋스러움!
고운 자태의 터질 것 같은 그리움이
아픈 사연으로 속세를 방황하는
목마른 독경 소리 되어
홀로 아픈 가슴 묻고
소슬한
바람은 가슴 속 그리움으로 다가옵니다.
아리도록 젖어드는 목탁소리
기다림의 끝벼랑에 서서
외로운 고독으로 나를 감싸안을 때
그리움으로
떠오르는 정겨운 얼굴은
나의 빈가슴으로 채워질 때
어느새 가슴 한 구석
가만히 새겨지는 그리움 하나
사랑하는 마음 만나고 싶은 마음
이자임 결혼 연구원으로…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자임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子)
농협온라인구좌 : 112-01-021221 예금주 이 영 숙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춘천백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신기하게도 신경통 고혈압 당뇨 수전증 두통 불면증 등 성인병을 치유하고 건강한 자의 머리는 맑아지며 의식 집중력과 판단력 증대. 피로감 감소, 놀라운 컨디션으로 禪과 기도에 좋습니다.

眞 氣

* 氣방석 등 생활용품 다양

*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한국일보 반지 84% 목걸이 88% 치료效果 세계서 유일하게 채굴 2년전부터 각광
강원白玉 두통·불면에 「효험」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 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3.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1%의 놀라운 치유효과를 기록했다.

대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두통, 불면증, 불안, 손발저림, 소화불량 환자를 대상으로 춘천연옥제품을 착용시켜 임상실험 결과 옥반지 84%, 옥목걸이 88%의 치료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서울신문 「春川産 白玉 성인병에 卓效」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T. 02-737-8881
F. 02-737-0697

부산지사
T. 051-634-5114
F. 051-634-5188

광주지사
T. 062-375-9986
F. 062-371-7544

대구지사
T. 053-427-8008
F. 053-425-8356

목포보급소
T. 0631-281-2534

공주보급소
T. 0416-55-0020

"2천만에 깨달음을"